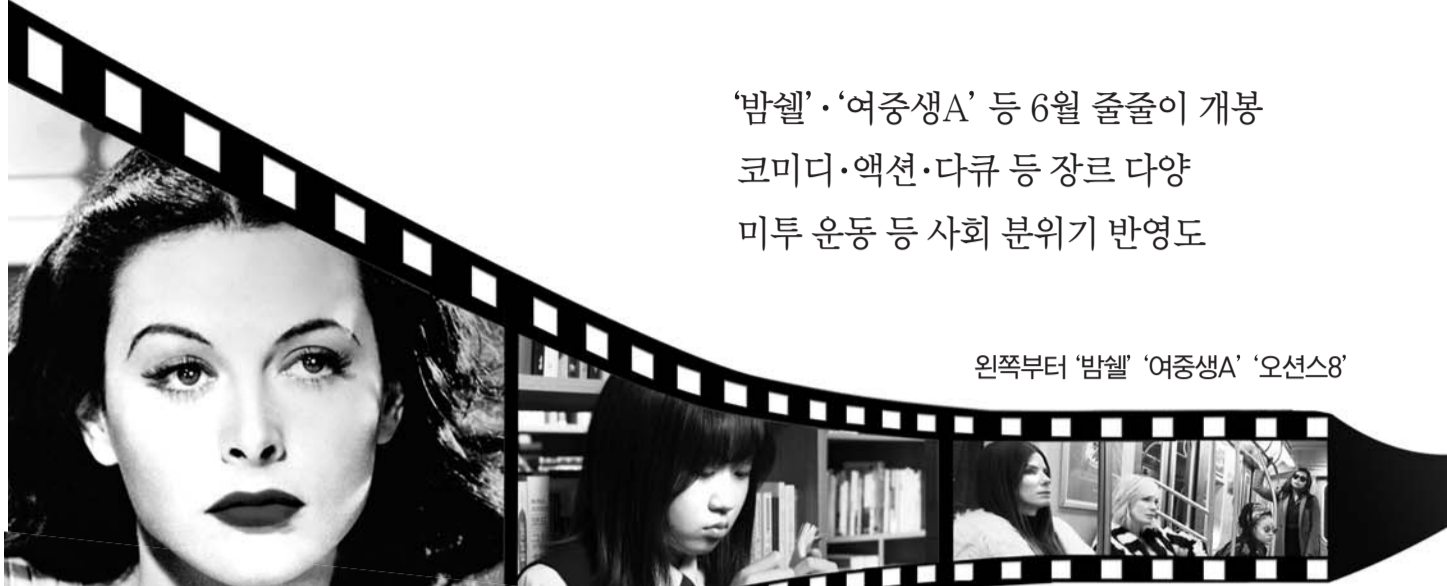


핫한 여름 극장가 여풍이 분다

‘밤셀’·‘여중생A’ 등 6월 줄줄이 개봉
코미디·액션·다큐 등 장르 다양
미투 운동 등 사회 분위기 반영도

왼쪽부터 ‘밤셀’ ‘여중생A’ ‘오션스8’



‘아이 필 프리티’



JYP, 中 합작 그룹 보이스토리 9월 데뷔

평균연령 13세... 선발과정 담은 예능도 선보여

JYP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최대 음악 스트리밍 기업인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TME)와 손잡고 보이그룹을 선보인다.

JYP는 6인조 그룹 보이스토리(BOYSTORY)가 오는 9월 중국 현지에서 정식으로 데뷔한다고 3일 밝혔다.

소속 사는 JYP 중국 법인인 JYP차이나나 TME가 합작해 세운 신성엔터테인먼트다. 멤버는 한위(14), 즈하오(13), 쉰룽(13), 저위(13), 밍루이(12), 슈양(11)으로 모두 중국인이며, 평균연령은 13세다.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은 2016년 9월 온라인 플랫폼 바이두(百度)의 티에바와 함께 보이스토리의 선발 과정을 담은 예능 '이상한 아저씨가 왔다'를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갯세븐의 잭슨, 미쓰에이 출신 페이 등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보이스토리는 데뷔에 앞서 지난해 9월 프리싱글 '하우 올드 아 유'(How old are you), 그해 12월 '캔트 스톱'(Can't stop), 올해 3월 '점프 업'(Jump up) 등 싱글을 공개했으며 오는 12일 '핸즈 업'(Hands up) 발매를 앞뒀다. 박진영은 이 싱글들의 제작을 진두지휘했다. /연합뉴스

“선수들의 통쾌한 복수 기대하세요”

OCN ‘플레이어’ 송승헌·크리스탈 등 출연

OCN은 배우 송승헌과 에프엑스 크리스탈(정수정), 이시연이 새 드라마 ‘플레이어’ 주연으로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플레이어’는 천재 사기꾼, 자타공인 최고의 해커, 천부적 드라이버, 타고난 싸움꾼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그린다. 송승헌은 천재 사기꾼 강하리, 정수정은 베스트 드라이버 차아령, 이시연은 천부적인 해커 임병민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블랙’, ‘신드롬’ 등을 담당했던 고재현 PD가 연출을, 2011년 한국추리문학상 장편 소설 부문에서 신인상을 받은 신재형 작가가 집필을 맡는다. ‘보이스’ 후속으로 올 하반기 첫 방송. /연합뉴스

스크린에 여풍이 불고 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잇따라 개봉을 앞뒀다. 미투 운동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극장가에도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에만 ‘아이 필 프리티’, ‘밤셀’, ‘오션스8’, ‘여중생A’, ‘마녀’, ‘허스토리’ 등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국내외 영화 예닐곱 편이 관객을 찾는다. 코미디, 액션,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장르를 물론 소재도 다채롭다.

6일 개봉하는 ‘아이 필 프리티’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예뻐졌다고 착각한 여성이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과 사랑을 모두 쟁취하는 내용의 코미디다. 업무능력과 유머감각, 날다른 패션센스까지 지녔지만 다소 통통한 외모가 콤플렉스인 르네(에이미 슈머)는 사고를 당한 뒤 깨어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다.

통통한 여인은 온데간데없고 그토록 꿈꾸던 늘씬한 미모의 여인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르네 혼자만의 착각이다. 자신감이 충만해진 르네는 외모 때문에 주저한 일에 하나씩 도전한다. 뉴욕 5번가에 있는 명품 화장품 회사 인내 데스크 직원에 지원해 뽑히는가 하면, 처음 본 남자에게 전화번호를 주기도 한다.

영화는 외모에 대한 온갖 편견을 코믹하게 비틀면서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열정이라고

말한다. 르네 역을 맡은 코미디 배우 에이미 슈머가 원랜쇼에 가까운 연기를 펼쳤다.

‘밤셀’(7일 개봉)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불린 헤디 라머(1913~2000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다.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외모에 열광했지만, 사실 라머는 과학자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이민자인 라머는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민간인이 탄 여객선조차 독일 잠수함 공격을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전조종이 가능한 어뢰 개발에 착수한다. 라머는 무선으로 어뢰를 조종하려면 보안기술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모함과 어뢰가 주파수를 바꿔가며 통신을 주고받는 개념을 창안하고 ‘주파수 도약’이라고 이름 붙였다. 주파수 도약은 오늘날 GPS 등 무선통신 산업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다. 영화는 외모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은 라머의 구체적인 삶과 과학적 호기심, 그 결과물 등을 소개한다.

13일 관객과 만나는 ‘오션스8’은 ‘오션스 일레븐’(2001) 여성판이자, 스프린프(파생작)다.

샌드라 블록, 앤 해서웨이, 케이트 블란쳇, 사라 폴슨, 리한나 등 할리우드 유명 여배우가 총출동했다. 톱스타 목록에 걸린 150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훔치려고 모인 범죄 전문가들의 활약을 그린 케이퍼 무비다.

멤버들의 화려한 두뇌플레이와 입담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뉴욕에서 열리는 최대 패션 행사 ‘메트 갈라’가 무대인 만큼 각종 패션 브랜드와 톱스타들도 등장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달 말 개봉하는 민규동 감독 ‘허스토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로, 묵직한 감동과 울림을 줄 예정이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벌인 수많은 법정투쟁 가운데 유일하게 일부 승소를 받아낸 ‘관부 재판’을 소재로 한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년 동안 23회에 걸쳐 일본 시모노세키를 오가며 힘겨운 법정투쟁을 벌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이들의 승소를 위해 함께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이용녀, 김선영 등 쟁쟁한 연기와 배우들이 출연했다.

‘마녀’(6월 말 개봉)는 ‘신세계’, ‘대호’, ‘브이아이피’ 등 선 굵은 남성영화를 주로 만든 박훈정 감독의 신작으로,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스터리 액션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여고생 자은은 보호시설에서 수많은 이가 죽는 사고가 나던 날 밤, 홀로 탈출해 살아남은 뒤 모든 기억을 잃는다. 이후 그 앞에 의문의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달 20일 간판을 다는 ‘여중생A’(이정성 감독)는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취미는 게임, 특기는 글쓰기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여중생 미래(김한희)가 처음으로 사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상처받고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다.

영화배급사 관계자는 “최근 사회 전반에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전형적인 편견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영화도 이런 변화와 가치를 담아내는 데 적극적”이라며 “앞으로 한국영화들도 점점 더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선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체 개봉 영화 편수를 고려하면 여성 중심 영화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편이다. 또 여름 대작이 쏟아지기 전 속 고르기 시즌인 6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도 여성 영화의 씩씩한 현실을 보여주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이별이 떠났다	30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국공순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⑨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10 좋은 아침
⑩	00 2018 지방선거 법정토론 (합평공수 후보)	40 지구촌 뉴스	2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0 검법남녀(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너도 인간이니(재)		00 푸르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선을 넘는 녀석들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목 보철설계(재)
①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광역, 교육감후보 경력방송	00 1대 100(재)		55 닥터 365
②	00 2018 지방선거 법정토론 (장성군수 후보)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경기지사 25 통일전망대	00 뉴스브리핑
③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프리파라 3 35 뽀뽀뽀 모두야 놀자	
④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5 양코리 MBC 다큐프라임 (나의 언어, 수어)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재)
⑦	00 KBS 뉴스 7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⑧	25 내일도 맑음	30 FIFA 월드컵러시아 2018 특집 볼쇼이영표 55 1대 100	55 5.18 30주년 특집다큐 두 개의 일기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⑨	00 KBS 뉴스 9			
⑩	00 광주광역시교육감 이정선 후보 방송연설 10 시사기획 창	00 너도 인간이니?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⑪	05 KBS 뉴스 40 전남도교육감 후보 법정토론	10 하룻밤만 재워줘	10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토론회 경기지사	10 지방선거 방송토론 경기도지사 후보
⑫	55 독립영화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1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큐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마감방송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박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미안마 축제에 빠지다 2부 영혼의 고향 파인다>
08: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뽀뽀	15:15 파프리카	<심심산골, 심심해서 좋아 2부 꿈꾸는 오두막>
09:00 뽀뽀뽀 뽀뽀로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글로벌 이빠! 찾아 삼만리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박치미
09:40 메디컬 다큐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4:45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뽀뽀(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병어조림과 콩나물 미나리무침>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마사와 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5일(음 4월 22일 庚申)

<p>子 36년생 마음속에 새겨져 잊지 않음이 옳다. 48년생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60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는 시기가 할 만하다. 72년생 안심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84년생 다른 방법을 택함이 현명하다. 행운의 숫자 : 14, 75</p>	<p>午 42년생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마당이다. 54년생 예견했다면 즉시 대처하라. 66년생 양보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서로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78년생 진행은 되지만 성과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다. 90년생 점점 복잡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59</p>
<p>丑 37년생 생산적인 관계를 견지하자. 49년생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니라. 61년생 오판을 할 수도 있다. 73년생 다 된 마당이니 깔끔하게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85년생 크기로 보지 말고 밀도를 살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9, 85</p>	<p>未 43년생 중요한 관점이다. 55년생 자연히 따라 올 것이니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 67년생 지연되어 왔던 바가 처리되는 통쾌함이 있다. 79년생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리라. 91년생 인식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06, 86</p>
<p>寅 38년생 잠재코만 있으면 된다. 50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봐라. 62년생 풍광이 밀려오고 있으니 안전하게 대피하자. 74년생 단속만 잘 해도 완벽한 예방을 할 수 있다. 86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말라. 행운의 숫자 : 97, 52</p>	<p>申 44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56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 68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하느니라. 80년생 절실한 상황에 대해서 관여하게 된다. 92년생 단 번에 끝내려 한다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3, 23</p>
<p>卯 39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51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을 주의하자. 63년생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계속 하자. 75년생 잘 살펴야 하느니라. 87년생 진전을 보이다가 걸림돌에 넘어진다. 행운의 숫자 : 80, 27</p>	<p>酉 45년생 상호간의 입장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57년생 귀찮더라도 일일이 확인하는 습관이 유익하다. 69년생 쉽게 해결될 것이니 부담감을 버려도 된다. 81년생 고뇌의 깊이가 심해진다. 93년생 반복될 뿐이다. 행운의 숫자 : 81, 42</p>
<p>辰 40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52년생 모여서 논해 봐야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니라. 64년생 발걸음이 가볍지 않겠다. 76년생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노력이 절실한 판국이다. 88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46, 11</p>	<p>戌 34년생 반갑게 맞이하라. 46년생 보고도 못 본 채하고 들어도 못 듣는 채 해야 한다. 58년생 속사정이 따로 있을 을 알아야 한다. 70년생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지지 못 하리라. 82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행운의 숫자 : 73, 10</p>
<p>巳 41년생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53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 되리라. 65년생 마무리가 시원치 않다면 가치가 하락한다. 77년생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89년생 표출하지 말고 흡입해야 할 시기이니라. 행운의 숫자 : 56, 83</p>	<p>亥 35년생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태이다. 47년생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59년생 쌓은 공이 비상시에는 약이 될 것이다. 71년생 중저대한 정보를 얻게 될 지도 모르니 귀를 열어 두자. 83년생 일취월장의 진척이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31, 38</p>